

배우 전여빈 “주저앉고 일어서기 반복...배우 생활은 긴 항해”

대만 인기 드라마 ‘상견니’ 리메이크 넷플릭스 ‘너의 시간 속으로’ 1인 2역 “배우로서 받아들이고 싶은 어려움” “혹평 못 흘러보내...모든 작품 소중”

백지에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과 완성작을 나만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것은 다르다. 무엇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할 수 없지만, 비교 군이 있다는 건 분명히 쉽지 않다.

배우 전여빈(34)에게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너의 시간 속으로’는 도전이었다. 대만을 넘어 동아시아 전역에서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상견니’ 리메이크작 주인공이라는 자리는 행운이면서 부담이었다.

원작 팬이었기에 작업에 들어가면서 점점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 행운의 손은 덱서 잡았지만, 제작진과 배우들, 원작을 첫사랑으로 간직하고 있는 팬을 떠올리니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무계에만 잠식되면 안 되니까 첫사랑에 상응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품으려고 했어요. 용기 없이는 작품을 만들 수 없잖아요.”

타임슬립, 1인 2역이라는 과제도 있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현실 세계의 준희, 1998년 준희의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긴 친구를 둔 고등학생 민주를 넘나들며 연기했다. 두 캐릭터가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 섬세한 표현이 필요했다.

“배우는 자기 안에 있는 걸 표출하고 싶은 게 많고, 그것이 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1인 2역이라는 건 원했던 과제였어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고 편안한 과정은 아니었지만, 정말 잘 해내고 싶었어요. 배우로서 힘들지만 기꺼이 받아들이고 싶은 어려움이었죠. 내 안에서 찢겨지고 주저앉았다가도 일어서고 많이 배운 현장이었어요.”

원작 감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움을 가미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김진원 감독 역시 모방성을 극도로 염려했다. 전여빈만의 준희와 민주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캐릭터가 겹으로 보여지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심연을 들여다보려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소통 방식을 선택하고 이런 템포를 가지는지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게 있었어요.”

대중의 평가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다. 전여빈은 영화 ‘거미집’ 홍보 일정까지 앞두고 있어 영향을 받을까 봐 일부러 반응을 살피고 싶지 않았다. 스스로 객관적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응을 물어보려고 한다. 질책은 받아들이고 복기하며 나아갈 생각이다. “모든 작품이 제 손가락처럼 소중한 거라 좋은 말이면 나쁜 말이

든 절대 흘러보낼 수 없는 편이에요. 저도 선배님들의 위치에 서게 된다면 칭찬이든 어떤 반응이더라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요.”

“평가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김진원 감독님은 제게 너무 훌륭한 연출자예요. 감독님이 많이 힘들고 복잡했을 텐데 배우들과 스텝 의견 취합하고 현장 이끌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려고 한 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감사를 말한다고 해도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부족한 감사 인사를 한다고 연락드렸어요.”

전여빈은 거듭 배우의 길에서 자신의 강점을 인복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죄 많은 소녀’ ‘낙원의 밤’, 드라마 ‘멜로가 체질’ ‘빈센조’ 등 탄탄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 길목에서 만난 귀인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계가 귀인이다. 저를 부정하는 상태가 아니니까”라며 “그런 면에서 전 사람 복이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 있던 일, 갖고 있는 능력으로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잘 해내고 싶어서 고민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멀리 보고 싶어요. 긴 항해를 하고, 깊은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서 배우 생활을 해나가고 싶어요. 제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띄우고 같이 답을 찾을 동료들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있다는 것, 내가 쓸모 있다는 게 동력이예요.”

뉴시스



이준호·정성일·이준영·유선호 ‘AAA 필리핀’ 간다



배우 이준호·정성일·김영대·이준영·문상민·유선호·안동구·재찬이 오는 12월 14일 필리핀 ‘필리핀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드 인 필리핀(이하 AAA)’에 온다. 이준호는 최근 종영한 JTBC 드라마 ‘킹더랜드’

드에서 여심을 제대로 사로잡았다. 지난 9월에는 그룹 ‘2PM’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 7월과 8월에는 일본에서 약 5년 만에 솔로 아레나 투어까지 성황리에 마치는 등 가수 활동도 활발히 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성일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로리와 tvN ‘우리들의 블루스’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넷플릭스 영화 ‘전,란’ 개봉을 앞두고 있는 정성일은 일본군 장수로 변신한다.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김영대는 오는 10월 ENA 드라마 ‘낮에 뜨는 달’ 방송을 앞두고 있다. 이준영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에 출연, 확장 시절 같은 반이던 김준애를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며 이용하는 최부용 역을 맡아 연기했다. 이준영은 오는 10월 25일 개봉을 앞둔 영화 ‘용감한 시민’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문상민은 tvN 드라마 ‘슈룹’,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 등에서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선호는 KBS 2TV 예능 ‘1박 2일’의 막내 멤버로 맹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성장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열녀박씨 계약결혼’에 출연을 확정 지었고, 이 시대의 최고의 셀러 브리티저 만렙남 ‘강태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안동구는 최근 종영한 tvN ‘이번 생도 잘 부탁해’에서 서하의 비서이자 절친인 하도운 캐릭터를 연기하며 매력을 배가시켰다. 그룹 ‘DKZ’ 멤버인 재찬은 지난해 주연을 맡은 워터 오리지널 드라마 ‘시맨틱 에러’를 통해 연기자로서 발돋움하며 주목받았다.

한편 2016년 처음 개최된 ‘AAA’는 배우와 가수를 통합해 시상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시상식이다.

‘더글로리’ 신드롬 후...기대와 실망 사이



임지연은 연인인 이도현과 시너지 효과를 냈다. 지니TV ‘마당이 있는 집’과 SBS TV 목요일 ‘국민사형투표’에 연달아 출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추상은’으로 분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남편 ‘김윤범’(최재림) 사망 후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 군만두를 먹는 신도 화제를 모았다. 국민사형투표에선 ‘김무찬’(박해진)과 ‘권석주’(박성웅)보다 푹기 가득한 경찰 ‘주현’(임지연)의 활약이 돋보였다. 인터넷방송 BI로 위장해 잠입 수사하고, 약질법을 대상으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하는 정체 미상의 ‘개털’을 추적하는 과정 등이 재미를 더했다. 1~6회 시청률 3~4%(닐슨코리아 전국기준)에 머물렀지만, 더 글로리의 학폭 가해자 ‘박연진’을 있게 만들었다. 전도연과 주연을 맡은 영화 ‘리블버’에 더욱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김히어라·차주영 아쉬움

한때 신원호 PD 드라마 ‘응답하라의 저주’라는 말이 떠돌았다. 이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후 차기작에서 크게 활약하지 못하고 부진한 성적을 낸다는 속설이다. 김은숙 작가의 넷플릭스 ‘더 글로리’도 이 징크스와 오버랩됐다. 올해 초 학교폭력을 사회적인 화두로 던지며 신드롬을 일으켰고, 주연인 송혜교뿐만 아니라 조연들까지 주목 받았다. 이후 이도현과 임지연은 후속작이 더 글로리만큼 흥행하진 못했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었다. 김히어라는 학폭 의혹으로 빛이 바랬고, 차주영은 작품 선택과 연기력이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도현·임지연 시너지

이도현은 더 글로리 주역 중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다. 이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흥행했지만, ‘주여정’(이도현) 캐릭터 자체는 설득력이 부족했고 ‘문동은’(송혜교)과 ‘케미스트리’도 잘 살지 않았다. 오히려 시청자들은 동은과 ‘하도영’(정성일)의 멜로 연기에 더 공감했다. 이도현은 더 글로리 이후 처음으로 슬럼프를 겪었다며 “캐릭터보다 내 연기가 이도 저도 아니고 애매했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6월 막을 내린 JTBC ‘나쁜엄마’에서 보란 듯이 날아 다녔다. 사고로 일곱살 지능이 된 검사 ‘최강호’로 연기 내공을 보여줬다. 보통 20대 남자 배우들은 특정 장르·캐릭터에 한정되곤 했지만, 이도현은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며 캐릭터를 완벽 소화했다. 지난해 군 입대했는데, 1년6개월의 공백기 아쉬움을 달래기 충분했다.

차주영은 더 글로리 후광을 누리지 못했다. 최근 막을 내린 KBS 2TV 주말극 ‘진짜가 나타났다!’에서 ‘공태경’(안재현) 첫사랑이자 비서 실장 ‘장세진’을 연기했다. 더 글로리 공개 전 진짜가 나타났다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당시 주말극이 쇠퇴하고 있었기에 아쉬움을 클 수밖에 없다. KBS 2TV 주말극은 전성기 시절 시청률 40%가 넘었고, 주연들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KBS 주말극 중 역대 최저 시청률인 22.9%로 막을 내렸고, 차주영 존재감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투바투, 아니타와 협업 ‘백 포 모어’ 음원·뮤비 공개

퍼포먼스 버전 음원도 공개

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정식 음원을 발표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15일 오후 1시(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팝스타 아니타(Anitta)와의 협업곡 ‘백 포 모어(Back for More(with Anitta))’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13일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2023 MTV Video Music Awards) 무대에서 선보인 곡의 오리지널 트랙이다. 시상식 무대 당시에 사용된 퍼포먼스 버전 음원도 공개

됐다. ‘백 포 모어’는 일상에서도 마법 같은 기적의 순간은 존재하고, 나에게 ‘너’와의 재회가 바로 그런 순간일 것이라고 말하는 곡이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세시함과 맛이 돋보이는 노래로, 아니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트렌디한 라틴 팝의 색채가 가미돼 더 매력적이다. ‘백 포 모어’의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춘 뮤직비디오는 무대도 향하는 범규의 뒷모습으로 시작된다. 다섯 멤버의 피지컬이 돋보이는 슈트 핏이 절제된 세시미를 풍기는 가운데, 질 새 없이 몰아치는 퍼포먼스가 시선을 끈다. 아



이슬레이션과 웨이브, 골반을 활용한 안무가 감각적인 무대를 끌어올렸고, 비트에 맞아떨어지는 동작들이 쾌감을 안긴다.

뉴시스